

고종연간 공문서 수록 지도 연구

양보경(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이경미(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1. 머리말

19세기 후반 개항과 함께 본격적인 서양 각국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고종대는 서양의 지리학과 지리적 지식, 근대적 지도제작기술을 직접 마주한 시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 지리학에서도 '전통'과 '근대'의 두 힘이 공존했다.

본 연구는 '고종연간 공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330매의 지도를 정리하여 근대지도제작 기술이 유입되던 시기 조선정부에서 제작한 지도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고종연간'은 고종의 재위 연간과 순종 재위 기간 일부가 포함된 1910년까지이다. 연구 대상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으로 부름) 소장 자료 중 고종대에 정부에서 편찬한 공문서 11,000여 종에 포함된 지도이다. 1차로 '서울대학교 규장각 공문서 자료조사팀'의 도움으로 열람실 및 서고에서 고종연간 공문서를 열람, 크기 측정, 문서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지도목록을 작성하고 사진 촬영을 하였다¹⁾. 이어 목록화한 지도들을 종류, 내용, 채색, 체재, 구성, 축척, 편찬기관 및 작자, 受發者 및 受發機關, 도장, 지질 등의 항목으로 나누었다. 3차로 문서의 수발관계를 기준으로 제작 주체를 나누어 제작목적에 따른 제작방법과 형태적 특징을 정리하였다.

2. 고종연간 공문서 수록 지도 개괄

1) 지도가 수록된 공문서 형식

본 연구에서 '고종연간 공문서'로 분류한 것은 정부기록류(官公文書)와 왕실재산관계서류(王室文書)로 이 두 종은 종래의 규장각 도서와 달리 일본의 국권침탈 과정에서 규장각에 이관, 편입된 자료들이다. 고종연간 공문서에 총 330매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지도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형식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지도가 포함된 문서들은 국내관계에서 생산한 문서와 국외관계에서 생산한 문서로 구분할 수 있다. 이차적으로 국내문서를 생산목적에 따라 '官衙間 往來文書'와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조사를 목적으로 생산한 '官調查書'로 세분하였다.

(1) 국내관계

1)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한 '韓國近代國家記錄體系化事業' 중 '고종시대 관공문서 분류 및 활용' 팀의 도움으로 가능했다. 연구팀과 사서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① 관아 간 왕래문서

‘민간에서 지방관아로 上達한 문서’는 지방의 추수관이나 감리서주사, 관찰사 등이 궁장토·역둔토의 소유권 및 산송 등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의정부·내부 등의 중앙관아로 올린 것이 대부분이다. ‘지방관아나 민간으로 下達한 문서’는 訓令·節目·指令의 형태로 덕원항 日本理事가 병원신축으로 감리서 이전의 전체 비용을 거류지에서 지출하라는 지시와, 전주 건지산에 조경단을 세우면서 만든 절목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 仕樣書(示方書)도 3건 존재했다.

표 1. 지도가 포함된 문서의 종류

국내관계						국외관계	
官衙間 往來文書				官調査書			
請議書	85	訓令	3	計算表	92	契約書	11
報告書	54	節目	3	地圖	37	證明書	9
請願書	5	指令	1	地誌	2	牒呈	7
仕樣書	3					照覆	2
收租案	2					照會	2
起案書	2					章程	2
質稟書	1					條約文	1
奏本	1					約定書	1
計	153(46.4%)			計	131(39.7%)	計	35(10.6%)

② 官調査書

관조사서는 皇室財產整理로 한성부와 경상남도 밀양일대 國有財產(산, 밤나무단지, 궁채전, 관청)을 實測한 도면과 관련한 문서이다. 이 외에 地圖疊과 地誌의 형태도 존재했다.

(2) 국외관계

외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서는 포경기지의 위치나 범위 조계지·조차지·거류지의 경계를 정할 때에 생산한 계약서·조약서·조약문·첩정·조회·照覆·章程·약정서 등 주로 토지임차와 이권침탈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2) 문서수발형태에 따른 지도의 형태분류

문서의 受發者(受發機關)를 기준으로 ‘하급관아에서 상달한 지도’, ‘중앙관아에서 하달한 지도’, ‘조선과 외국이 함께 제작한 지도’, ‘외국에서 제작하여 국내문서로 편입한 지도’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표 2>.

표 2. 문서 발신 주체별 지도

중앙관아	지방관아(민간)	조선-외국	외국	계
232(70.3%)	66(20.0%)	6(1.8%)	13(3.9%)	330(100%)

(1) 중앙관아에서 제작한 지도

총 232매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중앙관아(상급관아)에서 지방관아(하급관아)로 하달한 문서에 첨부한 지도와, 제실재산정리국에서 토지나 관청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지도로 나눌 수 있다. 증명서·계약서·보고서·사양서·청의서·지령·절목 등의 문서에 첨부된 지도이다. 이 지도들은 북방지역 군사기지 파악, 도로·철도 등의 교통로의 설계도, 공공기관 건설과 이전을 위한 평면도, 이권침탈, 토지 매각 및 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① 實測圖

중앙관아 제작 지도 중 근대식 측량기법¹⁾으로 제작한 지도는 국유재산을 정리²⁾한 도서에서 확인된다. 1907년 궁내부 제도국에서 제작한 『土地家屋調查書』(奎 21938, 1907)는 용산전차장건축이전 시에 '한성부 南署 屯芝坊' 일대를 측량하여 제작한 지도로 지도 내에 면적을 기록하였다. 1908년에는 토지조사사업을 준비하며 임시재산정리국 측량과에서 제작한 『실측도』(奎 25186, 1908)와 『土地及山麓圖本』(奎 25187, 1908)이 있다. 『실측도』 총 34매 중 29매는 한성부, 5매는 경상남도 밀양을 대상으로 제작하였다. 『토지급산록도본』은 총 12매로 이 중 9매가 한성부, 3매가 밀양을 대상으로 하였다.

같은 해에 궁내부 제실재산정이국에서 제작한 『朝鮮各官廳家屋圖本』(奎 26547, 1908년)은 46매의 도면으로 형식은 『실측도』와 거의 동일하며 총 35호의 실측가옥이 그려져 있었다. 이 중 2매의 도면에만 "정리국 技手 李啓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도면에는 "정리국 측량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현장에서 그린 『實測圖』를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문서는 『家屋基地及建物面積計算表』(奎 25188, 1908)로서 가옥의 면적을 기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계산해 놓은 것이다³⁾.

1) 이진호, 1989, 대한제국 지적 및 측량사, 토지, pp.34~48. 조선경부는 1898년 量地衙門에서 미국인 측량교사 크럼(Reymond Krumm)을 초빙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근대 측량기술을 가르쳤다. 1908년에는 탁지부 측량과에 측量技術見習所를 설치하고 소삼각측량, 도근측량, 세부측량 등을 교육하였는데, 이곳에서 훈련받은 젊은 생들이 토지조사사업에 참여하였다.

2) 김태웅, 1995, 일제강점 초기의 규장각 도서 정리 사업, 규장각 18, pp.157~197. 고종은 절대황권을 추구하면서 宮內府 内藏院 관리 하에 비대해진 宮內府制度를 정리하였고 이 작업이 끝나자 1905년 12월 宮內府財政會議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皇室財產整理에 착수했다. 1908년 7월 23일부터는 度支部에 臨時財產整理局이 설치되어 조사국의 결과대로 국유 부동산을 조사, 정리하고 帝室의 재무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제실소유 재산의 정리는 1907년 12월 1일 설치된 궁내부 제실재산정리국의 주도로 1908년 9월 2일까지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국유소유지와 관청 등을 파악하며 다수의 지도를 제작하였다.

3) 이규철, 2006,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인가, pp.227~228.

『조선각관청가옥도본』과 『실측도』와 『토지급산록도본』, 이 세 권의 도서¹⁾ 내에 그려진 실측도면을 대상내용과 축척별로 분류하여 정리²⁾하면 다음과 같다.

i) 山麓原圖

제실재산정리국 제작 한성부 실측도 중 '山'을 측량한 지도이다. 1908년 3월 22일부터 1908년 6월까지 제작한 지도로 총 12매이다. <그림 1>과 같이 뒷산에 진입하는 도로, 가옥, 수목, 암석을 범례로 상정하여 도면 내에 표현하였으며 어백에 "정리국 기수 李啓弘 测量"이라 기입하여 측량자를 확인할 수 있다. 축척은 4종류 1/500, 1/500, 1/1,000, 1/2,000로 다양하다. 지번과 지목이 없고 三斜法으로 求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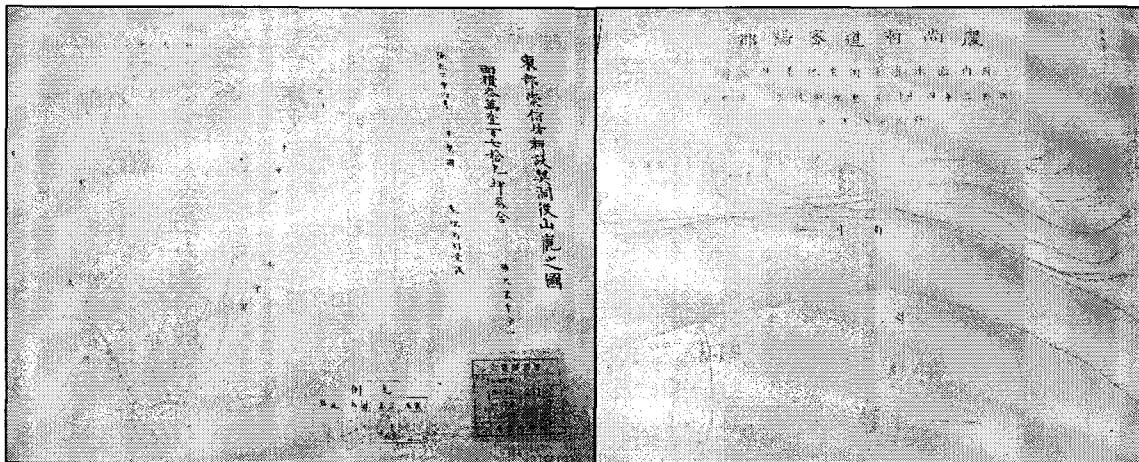


그림 50. 帝室所有 山(좌)과 栗林(우)을 實測한 地圖

자료:(좌)《東部崇信坊新設契洞後山麓之圖》(奎 25187, 1908년)

(우)《慶尙南道密陽郡府內面水月飛洞栗林基址原圖》(奎 25186의 2, 1908)

ii) 栗林原圖

밀양 일대의 '밤나무 단지(栗林)'를 실측한 지도이다. 1908년 3월 22일부터 1908년 6월 까지 제작한 지도로 총 8매이다. 가옥, 도로, 砂礫, 鐵道, 田畠, 舊居 등의 범례를 표시하였다. 지번은 없고, 三斜法으로 求積하였으며 地目은 '이근석전(李斤石烟)' 등 소유자 이름으로 표현하였다. 축척은 1/1,800 과 1/1,200의 2종류이다. 도면내에 "注意 但區域外及家屋等은槩測으로 흄"이라 표기되어 있다.

iii) 宮菜田圖

內需司 등의 7궁 소속 토지 중 菜田을 실측한 지도이다. 1908년 6월 이계홍이 측량하여製作한 것으로 도서 내에 총 4매(6지역) 있었다. 도면내 지점을 우물(井), 도로(路), 김동은 전(金東殷烟) 등 사표식으로 풀어 설명하였다. 지목과 지번은 없고 三斜法으로 구적되어

1) 이 외에도 이규칠의 2006년 선행연구에 따르면 『家舍不許借에關한文書』, 『家舍에關한照覆文書』, 『土地不許借에關한文書』, 『土地許借ニ關スル文書』, 『土地各官廳家屋圖本』 등 제실소유가사를 그린 도면이 존재한다.

2) 김추윤, 2005, 대한제국기 대축척 실측도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지도학회지, 제5권 제1호, pp.41~53.의 선행 연구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있다. 축척은 4매 모두 1/200로 동일하다.

iv) 田園圖

제실소유 농경지를 실측한 지도이다. 1908년 3월과 4월에 걸쳐 제작하였으며 총 2매 존재한다. 필지 소유자를 나타내는 사표식 표현과 전의 지목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 면적은 삼사법으로 구적하며 십자 화살표로 방위를 표시하였으며 축척은 1/1000로 동일하다.

v) 建物原圖

한성부 내 제실소유 주요 건물의 위치와 평면적을 실측한 지도이다. 1908년 6월 9일에 제작하였으며 총 4매 존재한다. 건물마다 건물관리번호를 기재하였으며 건물의 넓이와 폭을 표시하여 건물의 평면적 크기를 알 수 있다. 축척은 1/400이다.

vi) 官邸原圖

고위관리의 관저를 실측한 지도이다. 1908년 4월 29일 이계홍이 측량·제도한 것으로, 총 2매이다. 도로, 경사, 철책, 목책, 토벽, 연와벽, 우물, 수목, 가옥 등이 범례로 그려져 있다. 가옥주위에 목책과 철책이 있고, 별도로 우물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관저 주위에 수산국, 농상공부 등이 위치하며 축척은 1/400이다.

vii) 家屋原圖

호 단위로 가옥위치와 평면적을 나타낸 도면이다. 1908년 3월 16일부터 1908년 6월까지 제도하였으며 총 52매(55장소)¹⁾가 존재했다. 축척은 1/100과 1/200 두 종류이다. 지변 지목이 없고 삼사법으로 구적되었다. 가옥원도 주위에는 대로, 도로 등의 사표식 표기방법이 주기되어 있다.

실측도는 주로 한지에 붓이나 연필로 대상지역의 밀그림을 그린 후, 붉은 펜으로 거리와 넓이를 표기하거나 각 지점을 연결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도면은 도화지에 배접한 후 제책하였다. 도면 내에는 축척, 방위, 범례, 면적 뿐만 아니라 제도일, 측량처를 기록하였다. 사표식 표현과 田의 지목이 함께 존재하기도 하였으나, 삼사법의 표현이 현저했다. 이는 토지의 면적을 구하는데 각 거리를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위에서 계산하거나 기하학을 이용하거나 求積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음을 보여주며 이는 근대측량기술의 발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실측도에는 3~1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기호를 사용하여 범례를 상정하고 이를 표기하였다.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1,200의 대축척을 사용하여 협소한 지역을 자세하게 나타냈다는 점에서 이전에 제작된 지도와 차이점을 보인다. 이들 도면은 각 관청이나 국유재산토지, 산림지, 목초지, 건축용지 등을 실측하여 제작한 것으로 넓이 측량을 위한 지적도의 성격을 띤다.

이와 같이 고종연간에는 제실소유재산을 정리하면서 한성부와 밀양일대의 산과 관저,

1) 한 도면에 2지역이 들어간 지도가 3매 존재하였다. 따라서 지도 수는 52매, 대상지역은 55장소로 상정하였다.

가옥, 밤나무기지를 실측하였다. 일시에 많은 대상을 실측하다보니 일부는 개측을 행했던 흔적을 살펴 볼 수 있다.

② 略圖

『捕鯨基地全部位置略圖』는 1905년 외부특파위원 금서규와 일본원양어업회사 상무취체역 강십량 사이에 체결된 울산 일본원양어업회사 鯨業用地에 대한 관·민유지구별, 두수 결부기록 및 지가영증과 증명서, 지도이다. 이 지도 중 첫 번째는 포경기지 전부의 위치를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며 이 외에 총 8장의 약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3>은 각 지역의 지번과 면적이 표시된 지적도의 일종이다. 붉은색 도장을 찍고 검정색으로 측량한 면적과 거리를 첨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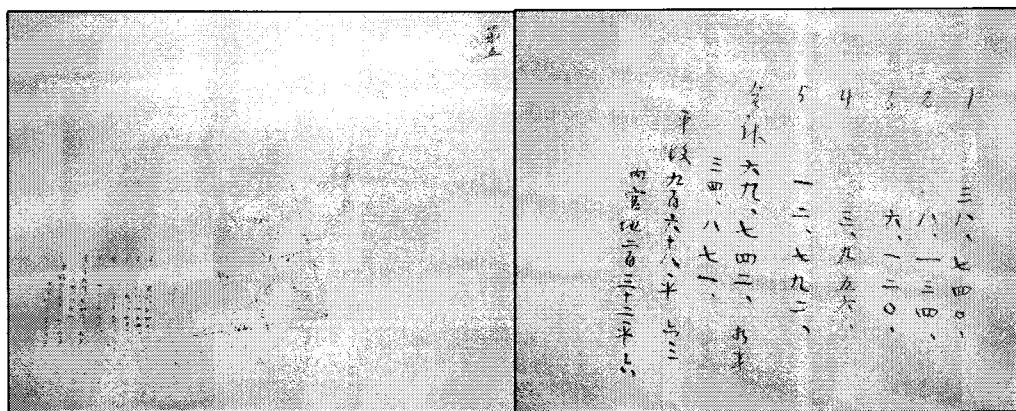


그림 51. 新築할 捕鯨基地의 斷面圖(좌)와 그 크기를 記錄한 註記(우)

資料:『蔚山郡 長承浦 일대 鯨業基址를 測量한 地圖』(奎 23144, 1905)

약도는 대부분 『奏本』에 올린 문서에 첨부한 것이 다수로 토지의 교환·매각을 안건에 제출하는 청의서와 함께 성철되었다. 문서의 발급자는 탁지부대신이나 내부대신이며 수신자는 의정府 내각총리대신¹⁾인 李完用으로 일치한다. 절영도 일본조차지의 평면도, 日本軍用地 지도, 충청남도 연산군 내 관답위치를 나타낸 명세도, 함경북도 청진항 토목공사시 필요한 석재 벌출을 위해 제작한 지도, 함경남도 경성군 일본 병영건축으로 그린 평면도, 경상북도 통영 경찰서부지를 국유재산토지로 교환하기 위해 만든 지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탁지부와 의정부(내부) 등의 중앙관아가 전·답 보유구역과 토지이용을 파악하고, 신설 건물의 설계도와 평면도를 간단히 나타내는데 약도의 형태로 제작한 것이다.

약도는 미농지에 연필·펜 등을 이용하여 밑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붉은 펜으로 첨기한 형태이다. 미농지는 표면이 반들거리고 흡수력이 낮아 먹으로 그리기에는 부적하며 두께가 얇고 힘이 없어 지도의 손상위험이 크나, 잘 비치기 때문에 이전에 그려놓았던 지도를 쉽게 전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약도는 같은 범위의 지역을 대상으로 동일

1) 국사편찬위원회, 1977, 한국사 17 근대, pp.280~288. 1894년 6월 28일에 가결된 중앙 관제 개혁안에 따르면, 의정부의 장관인 총리대신은 내각 수반으로서 각 아문을 통찰하게 하였다. 내각 총리대신은 각 대신의 수반으로 왕명을 받들어 행정 각부를 조정·통합하였다.

한 축척과 크기의 지도를 複本으로 제작하여 성철한 경우가 많았다.

③ 청사진

『奏本』에는 한성부가 각 지역의 옛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建造하기 위해 제작한 건축도면 중 청사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한제국기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의 핵심은 경운궁(덕수궁)을 중심으로 한 방사선도로의 시설과 기존 도로의 확대·정비 등이었다. 1906년 2월 1일부터 1910년 8월 29일 까지 계속된 일본 통감부 치하에서도 시가지 내 성벽의 철거라던가 도로의 신설·개수 등이 실시되었다. 1907년 9월부터 서울 남대문 양 측의 성벽을 철거하고 성문의 좌우에 도로를 신설하여 서울역전까지 연장한 공사, 1906년 가을부터 1909년 말까지에 대구성벽을 철거하고 그 뒷터를 축조하여 가로로 했던 공사, 그리고 1909년 5월 1일에 착공하여 1912년 8월에 준공을 보았던 부산 초량 앞바다의 매립과 방파제·도로·교량공사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¹⁾



그림 52. 청사진을 형태로 제작한 지도

資料:《農商工部廳新舍增築》(奎17703, 1909)

청사진은 건축설계도 제작 시 사용하는 복사법이다. 간단한 선을 나타내는데 유용하며 목판본 지도와 같이 다량 생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고종연간 공문서 수록 지도에서 주로 설계한 건축물의 구조·형상 등을 일정한 규약에 따라 나타내는데 사용하였다.

청사진에서는 전통적으로 서술하거나 십자등 단순하게 나타낸 방위의 표현이 별표, 화살표, 해도식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기호도 세분하여 표현하였다. 주로 한성부를 중심으로 지도가 제작되었다. 각 관서, 재판소, 경찰서의 신축 부지와 관련한 도면이다. 이는 기존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당연히 요구되었던 시설들로 지방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도면 내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고 이를 주도했던 주체가 연구를 통해 밝혀진다면, 1908년 이후 한성부 내에서 이뤄졌던 도시공간구조와 경관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1) 손정목, 1985, "일제하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1)", 대한국토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20권 제1호, p.203.

(2) 하급관아에서 상달한 지도

'지방에서 중앙이나 상급관아로 상달한 지도'는 총 72매이다. 이 중 지방관아에서 제작한 지도는 총 66매로 지방감리서의 관찰사·군수 등이 의정부(内部)·경리원·내장원 등으로 올린 문서(보고서·청의서·첩정·질품서)에 첨부한 지도이다. 山訟·토지와 관련된 지역사정, 전답지의 규모, 외국인의 이권침탈로 인한 피해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에서 제작한 지도'는 총 6매로 지방관찰사의 토지늑탈을 신고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창고 앞 가건물이나 토지사용을 요청한 지도로 청원서와 소장 등의 문서에 첨부되었다. 민간이나 지방관아에서 중앙관아로 올린 지도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작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여기서 전통적인 제작법은 목축이나 보축으로 제작한 지도로 주로 '한지'에 먹을 사용하여 대상지역을 표시하거나 그린 지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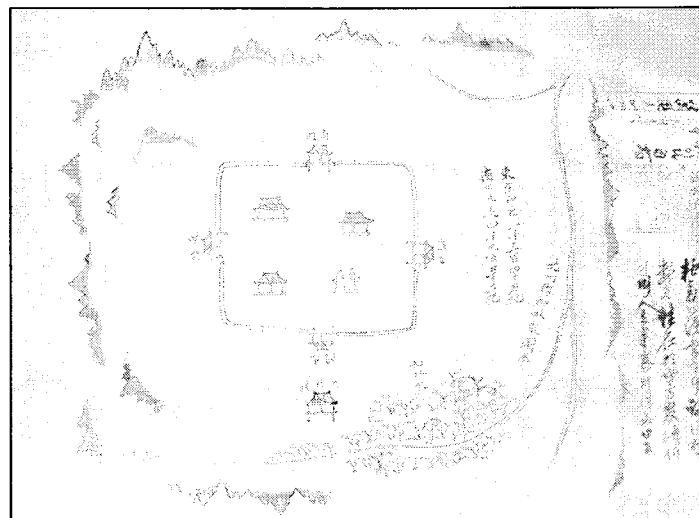


그림 53.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작한 지도

자료: 『光州郡 柳林藪 圖本』(奎 17982의 2, 1900)

<그림 1>은 전라남도 광주군수 宋鍾冕이 議政府贊成外部大臣에게 올린 보고서에 첨부한 지도이다. 한지에 먹을 사용하여 '남문' 등의 문표시를 통해 방위를 간접적으로 표시하였다. 먹의 농담으로 산과 수목을 채색하며 지도의 여백에 각 지역 간 거리를 보나리·간으로 나타냈다. 축척과 방위가 명시되지 않고, 이원적 축척이 적용되었다.

'외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서에 첨부한 지도'도 전통적인 제작방식이 사용되었다. 『影島의 러시아 海軍貯炭場指定地圖』(奎 23307, 1897)는 러시아公使 베베르(Weber)가 외부대신 閔種默에게 보낸 『影島의 러시아 海軍貯炭場指定에 관한 照會文』에 첨부한 지도이다. 문서의 발신자는 외국인이지만 지도제작은 지역파악에 능통한 지역민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외국과의 관계에서 제작한 지도

① 외국과 함께 제작한 지도

조선이 외국과 함께 제작한 지도는 총 13매(3.9%)이다. 계약서 · 각서 · 조회 등에 첨부된 것으로 낱장의 지도와 지지로 분류된 문서도 존재하였다.

<그림 5>는 1899년 3월 9일 미국인 여의사 필드(Eva H. Field)의 구매가옥에 대한 지적도와 계약서로 한성부 정동(지금의 서울 종로구 정동일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매입지는 도로로 지목이 설정되어 있다. 국한혼용체와 영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으며 지도 여백에 도장으로 계약을 인준하였다. 지도 상단에 정동교회의 모습이 간단하게 그려있으며 지도의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위치와 판매 경위가격이 기록되어 있다. '셔참판집', '한청 언덕아래난 미국사람 흘보시 전' 등의 서술은 지도 내에서 주기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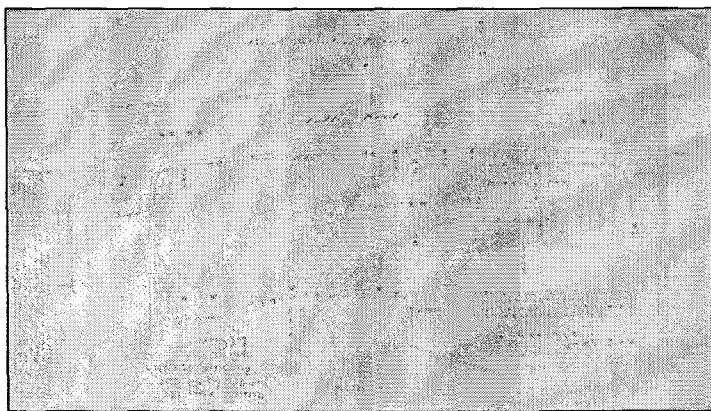


그림 54. 외국과 함께 제작한 지도

資料:《漢城府와 美國 女醫師 弼婦人사이에 맺은 購買家
屋 地蹟圖》(奎 23191, 1899)

외국과 함께 제작한 지도는 주로 도화지에 펜이나 색연필을 사용하였다. 외국인 거류지나 조차지 · 조계지의 범위 설정 문제나, 토지의 매매, 외국의 이권침탈을 다루고 있다. 조계지나 임차지 등의 경계지역을 붉은색의 선이나 빗금으로 나타내는 것이 많다. 이러한 지도들은 조선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인식과 교류정도, 당시 사용했던 각국의 도장, 지도 표현법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더욱 의미있다. 고종연간 초기에는 러시아의 이권문제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후반으로 가면서 일본 관련지도가 급격히 늘어났다.

② 외국에서 제작해 국내문서에 편입된 지도

외국에서 제작하여 국내문서에 편입된 지도는 총 13매로 청의서 · 규정 · 조약문 · 照覆 · 보고서 등에 첨부되거나 지도만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외국인 거류지나 조차지 · 조계지의 범위를 파악하거나, 거류지 내 해면매축,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것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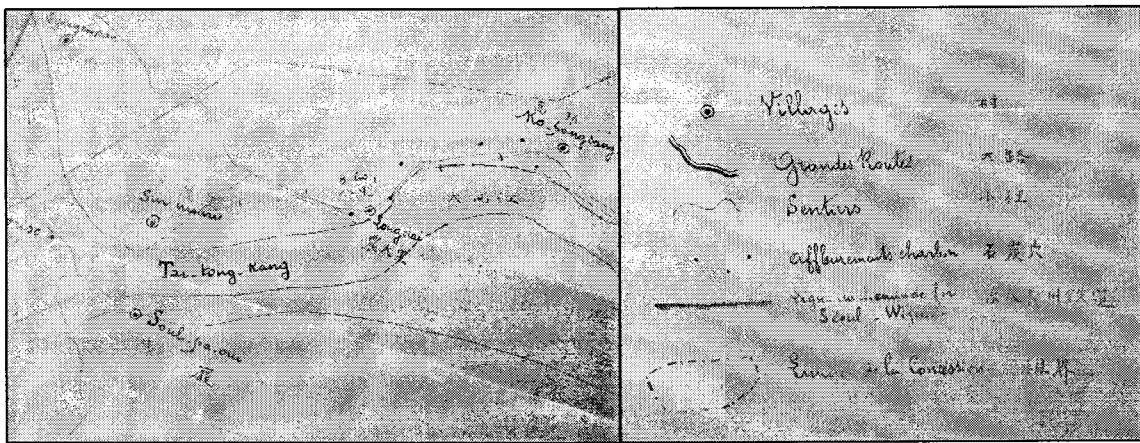


그림 55. 외국에서 유입된 지도(좌)와 범례(우)

資料: 『法館所來平壤三礦圖形』(奎 23318, 1888)

<그림 6>은 대동강 남안 臥南倉부터 대동강 지류인 북강의 高邦山에 걸쳐 있는 石炭穴의 소재처에 따라 구획된 佛國의 광산예정지를 도형화한 것으로 村, 大路, 小徑, 石炭穴, 京及義州鐵道, 租界 등을 黑·赤·青의 3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범례를 기호화 하여 나타냈으며 작성연월일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공문에 첨부되었던 부대서류로 보인다. 지도의 지질은 한지가 아닌 도화지나 미농지가 대부분이며, 펜과 색연필로 채색되어 있었다. 외국인이 제작하여 보관상 필요로 국내 공문서에 편철된 것으로 보이며 지도 사이에 한역한 흔적을 볼 수 있다.

1) 연도별 · 도별 지도제작

고종연간 공문서 수록 지도 중 1881년에 제작된 지도가 가장 빠른 시기에 제작된 것이다. 1910년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 제작한 지도수와 지역을 도별로 정리하면 <표 5>¹⁾와 같다. <표 5>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공문서에 첨부한 지도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는 개항 이후 외국과 교류하는 가운데 조차 · 조계 문제로 많은 수의 지도가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황실재산정리사업으로 실시한 국유토지파악과도 관련이 있다.

1880년대에는 개항이 처음 이뤄진 인천을 대상으로 지도가 제작되었다. 1894년과 1895년 러일전쟁 국경지역인 함경도와 개항장인 인천 · 부산을 대상으로 지도가 많이 생산되었다.

1906년 이후 한성부와 경기도 · 경상도 · 충청도 · 함경도를 대상으로 실측지도가 제작되었다. 『실측도』 내 지도 34매, 『토지급산록도본』 내 지도 12매와 『조선각관청가옥도본』 내 지도 46매가 그것이다. 이 지도들은 한성부와 경상남도 밀양 내 국유재산을 파악한 것으로 1908년 경상도에서 많은 수의 지도가 제작되었던 이유를 뒷받침해준다. 경상도 지역을 그린 지도는 1876년 이후 꾸준히 존재하는데 이는 금융회사가 설립되었던 경상북

1)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는 『平安北道 소재 軍用地의 基地地形』(奎 27356) 1-1-1에서 1-1-11까지 地圖 11매와 『山林收用地域實測圖』(奎 26645) 1매는 제외하였다. 여기서 '일'은 日本, '중'은 중국을 지칭한다.

도 대구와 개항지였던 경상남도 부산을 그린 것이다.

1908년 이후 한성부와 경상도, 충청도 등지에서 많은 지도가 제작되었다. 이것은 도시 개조사업을 추진하며 한성부 내 주요 관청건물들을 세우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도면으로 고건물을 매각하기 위한 평면도나 신설건축물의 도면이 주 내용을 차지한다.

도별로 지도 제작 상태를 살펴보면 수도인 한성부를 그린 지도가 137매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뒤로는 실측도를 제작했던 경상도가 59매, 국경지역이었던 평안도와 함경도의 지도가 각각 28매로 비중이 높다.

고종연간 공문서 수록 지도 중에는 인천·부산·원산·마산 등의 개항장을 그린 지도가 많다. 주로 외국의 조차·조계·거류와 관련한 내용이다. 개항장은 우리나라의 요지가 되는 곳으로 당시 국가기밀상, 국방상, 전략상 중요한 장소였다. 고종 초기에는 수도인 한성부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인천이 주 대상이었다. 개항 이후 인천은 전관거류지와 일반 외국인거류지가 설정되고 뒤이어 외국인 거류지는 원산·부산 등지로 확장되었다. 특히 부산은 일본과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조선시대 이래 일본의 전초기지였으므로 일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었다.

표 4. 年度別·道別 地圖製作數¹⁾

年 度	대상지역										계
	漢城府	江原道	京畿道	慶尙道	全羅道	忠淸道	平安道	咸鏡道	黃海道	其他	
1 1881											일2 2
2 1882				2							2
3 1883											결
4 1884				4							4
5 1885											결
6 1886											2
7 1887										백두산	1
8 1888	1										1
9 1889				1					1		2
10 1890					2				1		3
11 1891											결
12 1892					1						1
13 1893				1	1				1		3
14 1894									1		1
15 1895							3				3
16 1896			3						1		4
17 1897				1	1	1		5			8
18 1898					2						2
19 1899	3				5	5			3	전국	17
20 1900	1	2	2	2	1	1	2				11
21 1901	1				1		1				3
22 1902					2				2		4
23 1903					1	1		4			6
24 1904					1	1	1	3	1	2	9
25 1905	5	2			9			2	2	1	증1 22
26 1906				1		1		3	4		일1 10
27 1907	2				4			1			백두산 8
28 1908	86			4	20		1	3	7		121
29 1909	32			1	3		15		5		56
30 1910	6			1	2			2			11
합계	137	4	21	59	10	19	28	28	4	3	4 317

3) 고종연간 공문서수록 지도의 내용 분류

(1) 황권의 강화

고종은 고유의 전통문화와 사상·제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서구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1899년 고종은 조선의 시조가 되는 司空公 李翰의 묘역을 정리하고 조경단을 조성하였다. 《全州府乾止山圖形》(奎 9740, 1899)은 전주에 있는 건지산을 앞쪽에서 올려다본 시점에서 전주 이씨의 시조인 신라시대의 司空公 李翰의 묘역을 중심으로 산 전체를 조망하여 그린 지도이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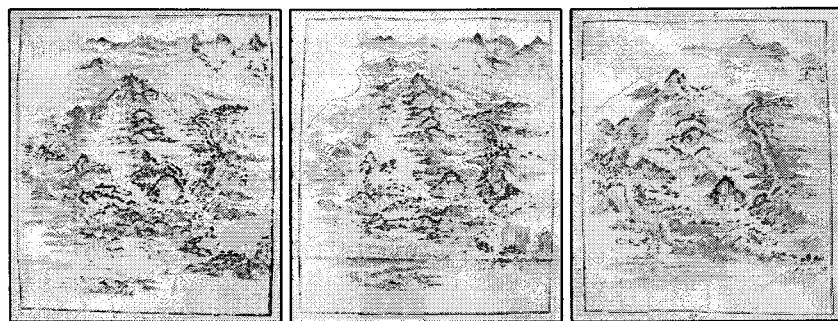


그림 56. 조선왕조 시조를 모신 건지산 지도

資料 : 《全州府乾止山圖形》(奎 9740,奎 9741,奎 9742, 1899)

조경단과 비각의 건립이 완성된 후 그것을 기념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왕에게 조경단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연한 붉은색과 연두색 그리고 진한 양록을 섞어 채색한 후 가는 필선으로 산의 흐름을 표현하였다. 사실적인 묘사, 시점의 통일과 원근법의 적용 등에서 근대적인 회화의 성격까지 엿볼 수 있다¹⁾. 절목과 지도는 비단을 사용한 표지로 장책되어 있다.

(2) 근대문물의 수용

고종은 1898년 한성전기회사의 설립으로 전기와 수도시설의 공급에 착수하였다. 전차와 철도 등 교통로를 개설하며 근대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지도가 만들어졌다.

① 통신시설의 도입

신사유람단의 일본파견과 영선사의 청국파견은 근대적 기술도입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전신과 우체사업으로 발달하였다²⁾.

1) 박정혜, 이예성, 양보경, 2005,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지도, 민속원, pp.216~218.
2) 고종시대 통신시설인 電報局은 1885년 9월 28일, 처음으로 漢城과 仁川間に 電信이 開通된 것을 계기로 漢城에 漢城總局, 仁川에 分局을 설치하고 곧 이어 平壤·義州에도 分局을 두었다. 1897년 電報局은 電報司로 改稱되어 서울에 總司를 두고 지방에는 그 크기에 따라 1등 電報司, 2등 電報司를 두었으며, 1905년 이를 通信院에 이관하였다. 通信設施의 發達은 時間과 空間의 限界를 넘어 사람들의 이동시간을 단축시켜 주었고, 국가차원에서도 전국을 다스리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편리함으로 새로운 문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많아졌으며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더 많은 시설을 구축하고 확보해야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http://www.encykorea.com>)

《漢城電報總司 全州電報司官制 改正을 위한 地圖》(奎 17703, 1899)는 의정부찬정농상공부대신립사서리의정부찬정 민종목이 의정부의정 윤용선에게 보내는 청의서에 첨부된 지도이다. 붉은 원 모양의 도장을 찍어 漢城總局을 포함하여 한성·개성·평양 등 지방분국의 도시명을 기입하였다. 全州分局이 2개 표시되어 총 20개의 電報司를 나타내었다. 지도 내에 한성과 개성을 잇는 연결선이 2개인데, 이는 두 도시가 통신·전달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반영한다.



그림 57. 電信의 設置와 關聯된 地圖

資料: 《漢城電報總司 全州電報司官制 改正을 위한 地圖》(奎 17703, 1899)

② 在外公館의 設置

수도이자 중심부였던 한성과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개항장을 중심으로 공·영사관의 설치문제가 대두되었다. 가장 이른 것은 《公館豫定敷地 貞洞 부근 地圖》로 프랑스 공관을 2차로 세우면서 작성한 도면이다<그림 9>.

프랑스는 1887년에 정동에 임시로 공관을 세웠다. 1888년 11월 4일 뿐만 아니라 부산·인천의 외국인 거류지에서도 나타나며 이로 인해 경관의 변화가 현저히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도 청, 영국, 일본의 공·영사관과 관련한 지도가 1910년까지 꾸준히 제작되었다.

1) 1885, 舊韓國外交文書 제19권 德案(1) 문서번호 95, 96, 98.

표 5. 재외공관 설치와 관련된 地圖

지도명	제작목적	관련국	제작년도	도서번호
公館豫定敷地 貞洞 附近 地圖	프랑스 公館 新築 敷地를 그린 貞洞 附近 地圖	프랑스	1888	奎 18048
日本領事館基地圖形	三和港 各國 租界 內 日本 領事館 基地圖	日本	1897	奎 17865의2
飴南浦俄國領事館基地圖形	飴南浦 러시아領事館을 測量한 地圖	러시아	1897	奎 17865의2
總海關署原址 分讓歸 慶運宮及留爲官宅暨公所之地圖	英國 官邸 豫定地를 그린 地圖	영국	1901	奎 18050
金堤 群港留駐日本領事 관련된 圖面	金堤 群港留駐日本領事 지대와 관계된 圖面	日本	1904	奎 17982의3
埋築豫定地圖面	英國 領事館 豫定地의 埋築 平面圖	영국	1908	奎 17703
釜山營繕山及英國領事館山鑿平 茲海面埋築平面圖	釜山 营繕山 英國領事館 立地豫定 埋築地 平面圖	영국	1910	奎 21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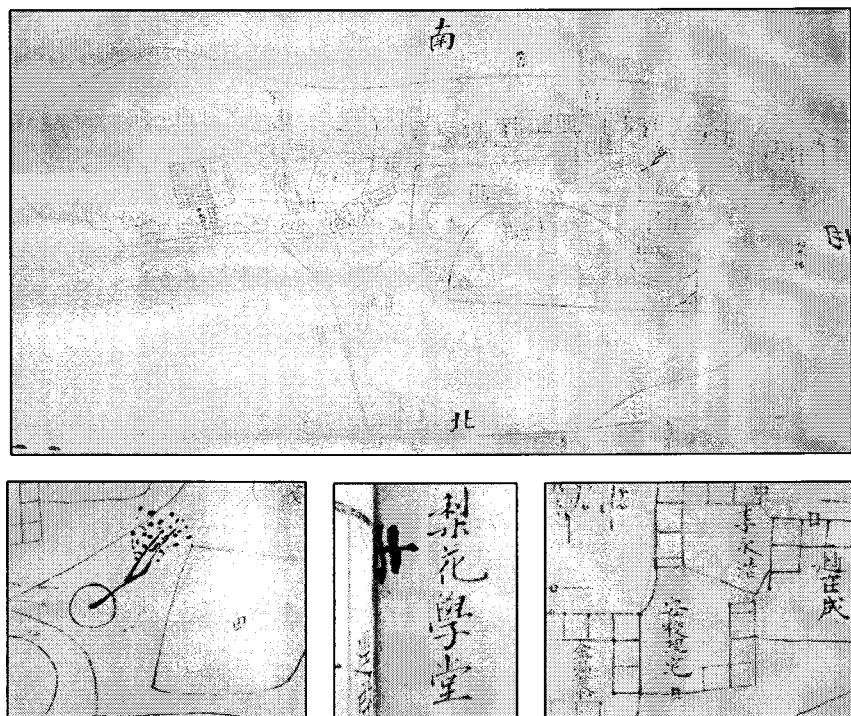


그림 58. 재외공관의 설치와 관련된 지도

資料:《公館豫定敷地 貞洞 附近 地圖》(奎 18048, 1899)

(3) 이권 침탈

① 어업권 침탈

고종연간 공문서 수록 지도에는 러시아와 일본 등 외국포경선단이 국내에서 포경사업¹⁾

1) 皇城新聞, 1902年 1月 26日, 우리나라에서 外國人們이 捕鯨을 하게 된 것은 1891년 러시아 황태자 니콜라이 2세가 日本으로 가다가 長承浦 앞 바다에서 큰 고래 폐를 발견하면서부터이다. 그는 귀국 후에

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작한 지도가 있다. 대부분은 포경기지를 조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지도는 경상남도 울산군 구정리를 위시로 1899년 3매, 1900년에 2매, 1905년에 9매 등 총 15매가 존재했다.

『울산군외현면구정리채색지도』(奎 23284, 1899년)는 1899년 4월 29일 경상남도 울산군 구정리의 부경기지에 대한 보상 확인서에 첨부된 것으로 고래를 나르는 포경선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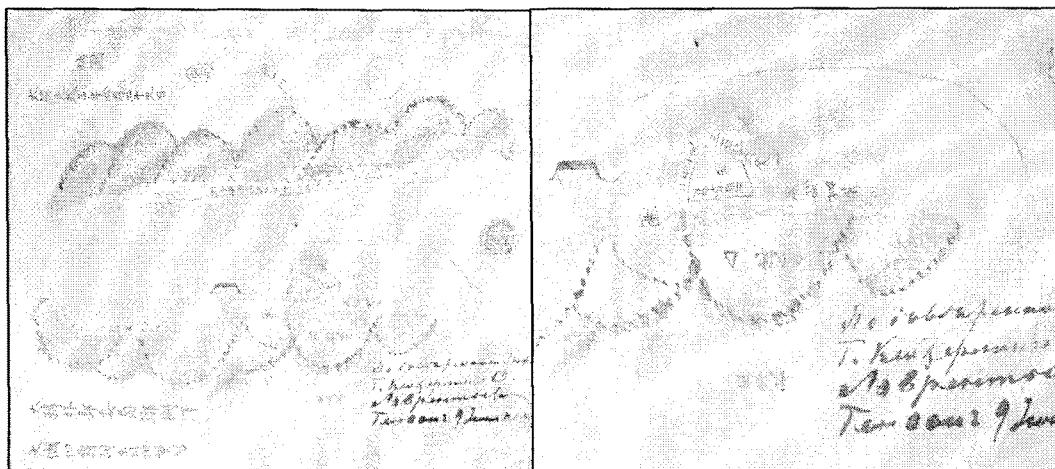


그림 59. 동해상 포경과 관련된 지도와 擴大圖

資料: 『蔚山郡外峴面九井里彩色地圖』(奎 23284, 1899년)

『捕鯨基地全部位置略圖』(奎 23144, 1905)는 1898년의 경업기지합동에 따라 러시아가 조차한 포경기지 함경도 홍원군 마양도의 지도이다. 마양도 포경기지의 객관적 위치를 북청과의 관련 속에서 표시하였으며, 『露西亞人賃租한 咸鏡道洪原郡捕鯨基址地圖』² 는 마양도 홍인동과 도장동에 세울 포경기지의 정확한 위치와 구역을 표시하였다.

포경·어업지대와 관련한 지도는 1880년대 후반 함경도 홍원군 마양도부터 시작하여 1900년대 들어서면서 경상남도 울산군 장승포, 강원도 통천군 마양도를 대상으로 제작되었다.

『捕鯨基地全部位置略圖』은 1905년 외부특파위원 금서규와 일본원양어업회사 상무취체역 岡十郎 사이에 체결된 울산 일본원양어업회사 경업용지에 대한 관·민유지구별, 두수 결부기록 및 地價領證과 증명서, 지도이다. 1904년 1월 11일자 경어사업특허계약에 의해 선정하였던 포경기지를 계약의 일부변경 증명서에 구별기록·지가영증과 지도를 첨부한 것이다. 좌측 지도는 전체 포경기지의 위치를 간략하게 표현한 지도이며 『蔚山郡 長承浦 일대 鯨業基址를 測量한 地圖』 외에 제1에서 제8까지 총 8장의 약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측지도는 이중 제5기의 내부를 확대하여 그린 것이다.

太平洋漁業株式會社를 설립하고 朝鮮政府로부터 捕鯨權을 얻어 고래를 잡았다. 고래 해체 작업을 위한 장소로 長承浦 일부지대를 빌리면서 본격적인 고래掠奪이 시작되었다. 1883년 朝·日通商章程의 체결에 따라 全羅, 慶尙, 江原, 咸鏡 4도 연안에서 操業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日本은 1904년 忠淸, 黃海, 平安道 연안의 通漁權도 강탈해 갔다.

② 토지 약탈

고종연간 지도 중 조계지의 설정과 확대, 조계지 내 영사관 설립 등과 관련한 지도는 총 7매로 1889년부터 1899년 사이 제작되었다. 평안남도 증남포(현재 남포항)가 3매, 경기도 인천이 2매, 경상남도 창원이 1매, 원산이 1매로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다. 해당 국가는 미국·일본·영국·독일·러시아·프랑스·청이다.

《三和港租界圖(鎮南浦 各國租界地圖)》는 1897년에 진남포와 목포에서 ‘各國租界設定章程’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조계도로 10월 16일 會押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계지와 조차지는 제한된 경계를 적색선으로 표시하였다. 지도 하단엔 각국영사관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외국인 거류지와 관련한 지도는 1884년 4매를 시작으로 1893년 1매, 1899년 3매, 1900년 2매, 1901년 1매, 1902년에 2매, 1906년 1매, 1908년 3매, 1909년에 3매 총 20매 제작되었다. 인천제물포에 적합한 거류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린 居留云云地 지도, 각국의 조계지 표시지도, 제물포에 통상하는 각국 상민의 거류지 약도, 전라남도목포 외국인거류지 해안지구, 마산군 마산포에 각국 거류지를 표시한 것 등이 그 내용이다. 대상지역은 인천과 부산이 각각 5장으로 가장 많다.

조계지와 조차지에서 생활영역을 확장한 외국인의 이주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조선 내 거류지 확장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마산을 대상으로는 4매, 함경남도 원산과 경상남도 목포가 각각 2매, 함경북도 청진과 경상남도 창원을 대상으로 각각 1매씩의 지도가 제작되었다.

(4) 일본의 침략

日本人들은 생활기반시설을 조선정부에 요구하며 본격적인 조선침략을 추진한다. 이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집계해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조계지나 거류지 내 일본인 생활영역 확대와 관련된 내용

분류	해면매축권	묘지	영사관기지	공원	병원	축대	철도	수로	警察署
지도수	14	5	3	2	2	1	1	1	1

① 철도건설

철도건설과 관련한 上訴에 첨부된 지도는 1897년부터 1907년까지로 고종연간 꾸준히 나타난다. 일본은 경인선·경부선의 건설공사 중 본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를 개설하였다. 이에 지맥을 끊고 생활터전을 침범하게 되어 민간의 저항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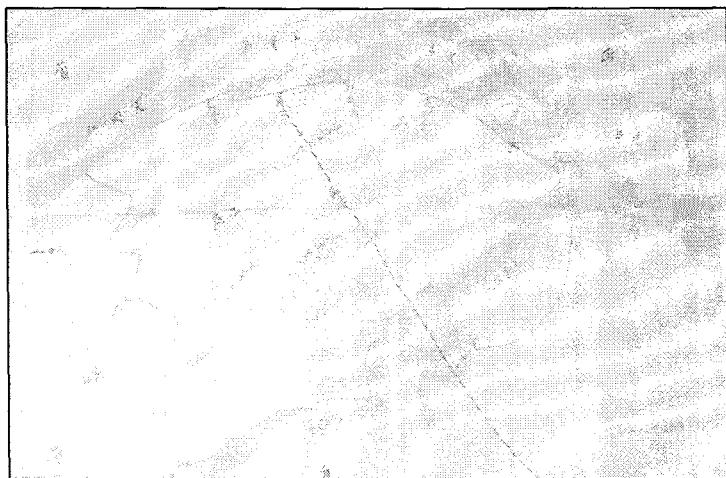


그림 60. 『紅線即日人木標界限』(奎 17988, 1904)

『紅線即日人木標界限』은 일본의 철도건설로 인한 피해로 올린 문서에 첨부한 지도이다. <그림 12>는 평양을 둘러 흐르는 대동강을 옆은 푸른색으로 채색하였으며, 평양 외성 지역을 붉은 색으로 표시하였다. 지도의 우측 하단에는 "紅線即日人木標界限"라 표기되어 있다. 즉, 붉은선이 곧 일본인의 정거장 目標界限이라는 것이다. 평양 외성 안에는 고종의 명령 하에 1902년 건설한 豊慶宮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이를 가로지르는 "철로"가 놓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해면매축권

일본은 부산을 대륙진출의 기지로 삼고자 하였다. 개항 이후 일본인 거류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자국영역으로 확장시키려 하였다¹⁾. 그러나 부산은 해안에 위치하여 건물·도로·철도 등을 건조할만한 땅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늘어나는 물동량과 인구 증가를 대비하며, 부산항 매축·토목·철도·도로공사 등에 힘썼다.

『第壹號 釜山居留地附近平面圖』(奎 17703, 1908)는 『奏本』내 청의서 제35호에 첨부한 것으로 부산 절영도 부근 지도이다<그림 13>. 용두산 일대(현 중구)와 절영도 서쪽 지역(현 영도구 대평동)을 대상으로 한다. 지도의 우측 하단에 <釜山居留地團役所印>도장이 있어 지도를 만든 주체를 확인할 수 있다. 『第壹號 釜山居留地附近平面圖』(奎 17703, 1908)는 당시 일본전관거류지였던 용두산 부근 밀집된 가옥과 격자형의 도로가 그려져 있어 일본의 계획 하에 형성된 일인 시가지형태를 보여준다. 지도 상단에 '철도선로'가 표시되어 있다. 교통축을 자국과 가까운 부산지역까지 철도를 연결하여 발달시키는 것으로, 이는 매축이 일본의 군사적·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추진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 1905년 러일전쟁의 승리로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된 일본은 동년 11월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내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1906년 2월에 일본의 이사청 설치로 부산은 이사관이 부산의 일본영사와 동래감리와의 사이에 사무인계가 이루어졌다. 부산에 일본이사청의 설치로 영사관은 물론 감리제도가 폐지되고 일본전관거류지가 초량왜관이 있었던 용두산 일대 11만평에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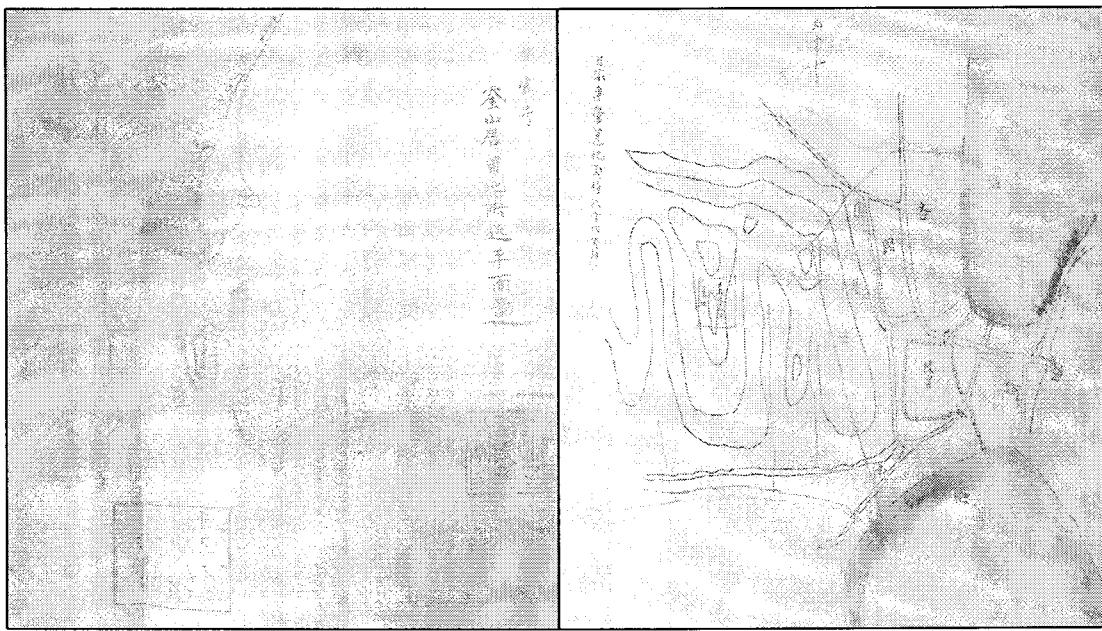


그림 61. 부산항 매축관련 지도(좌)와 일본인묘지와 관련된 지도(우)

자료 좌:《第壹號 釜山居留地附近平面圖》(奎 17703, 1908)

우: 《各國居留地墓地 및 各國人墓地, 日本專管墓地圖》(奎 17871의 2, 1902)

③ 일본인 전용묘지 요구

일본인들은 '각국거류지'를 거점으로 주변지역의 토지를 매수하고 각종 이권을 점탈하면서 세력을 뻗어나갔다. 영사관의 관사부지를 비롯하여 학교, 공원, 수로용지, 병원, 묘지 등의 명목으로 토지 사용을 요구하며 확보해 나갔다.

고종연간 공문서 수록 지도 중 '일본인 묘지'와 관련한 것은 총 5매로 1899년과 1900년 창원에서 2매, 1902년 성진에서 2매, 1907년 마산에서 1매 제작되었다. 각 항 일본영사에서 일본인 전용묘지를 요구하는 범위를 확정하여 그린 조계, 민간에서 일본인 전용묘지의 범위의 확장으로 피해를 입어 이를 줄여 달라고 올린 질품서에 첨부한 지도들이다. 《各國居留地墓地 및 各國人墓地, 日本專管墓地圖》는 각국 거류지의 모습을 그리고 산을 등고선으로 표시한 뒤 일본인 거류지와 일본인 묘지의 계한선을 적색선으로 표시하였다.

④ 식수로의 이전

일본이 요구한 토지의 용도는 거류·수로·축대건조등 단기간 거주에서 경찰서·병원·철도·세관·공원으로 점차적으로 장기간 거주에 필요한 항목으로 확대되어 간다.

《各國租界 관련 地圖》(奎 24203, 1893)는 일본인 조계지에 식수를 공급하는 수로이 전문제를 보고하며 부산항감리서에서 올린 자도다<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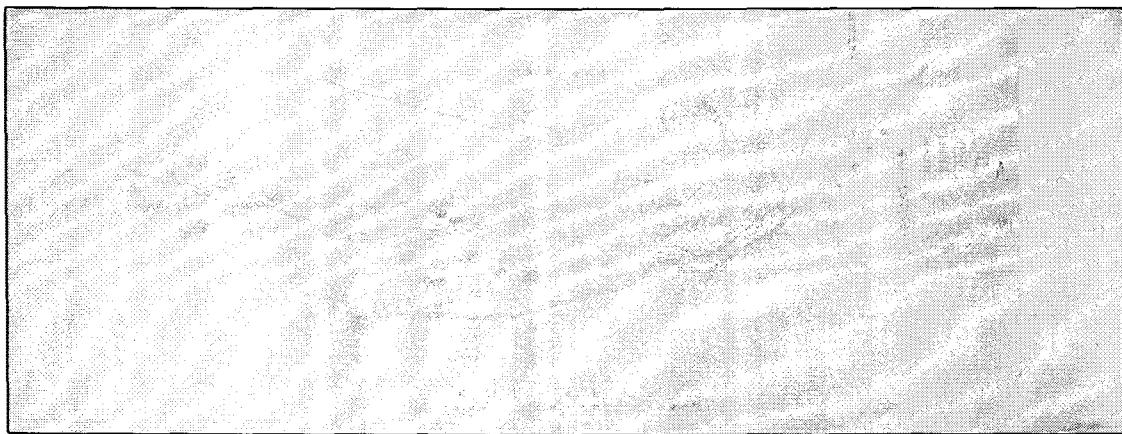


그림 62. 일본인조계지 내에 수로를 옮기는 문제로 제작한 지도

資料: 《各國租界 관련 地圖》(奎 24203, 1893)

지도의 상단에는 일본인이 원하는 수로폭을 6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준에 흐르던 수로는 농사짓기에 편리하도록 수원지에서 논과 民家에 수로를 내어 물을 끌어다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人家와 畦사이에 있어 일반 민가에서는 편리하게 사용하였을 것이다. 한편, 일본 거류민들은 조선의 민가와 논을 거쳐서 수로가 도달하므로 물이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있었으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넉넉하지 못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日本이 새롭게 이전하기 원하는 식수로는 산과 지표의 경계선으로 근처에 묘지가 위치하고 있어 산송이 일어날 요지가 크다. 또한 농경지에 대는 물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일본인거류민들은 수로를 변경할 경우 일어나게 될 문제점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주장하며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1908년 기준에 사용하고 있던 세관용지의 일부를 철도용지로, 1909년에는 성진항 세관용지 내 산지를 일본거류민을 위한 공원지로 교환하기 위해 작성한 지도 등이 있다.

3. 맷음말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고종연간 공문서에 첨부된 지도를 파악·정리 비교하였다. 문서수발자를 중심으로 지도 330매의 제작주체를 문서발신자로 정리하여 하급관아나 민간, 중앙관아, 외국과의 관계에서 작성한 근대시기 지도의 제작특징을 살펴보았다.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종연간 공문서 수록 지도는 문서의 발신자를 기준으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작한 지도, 근대 측량기술을 바탕으로 실측한 지도, 외국과 함께 제작한 지도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민간과 지방관아, 중앙관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조선시대부터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셋째, 중앙관아에서 1900년대 이후 국유재산토지와 가옥을 파악하며 서울과 밀양지역을 중심으로 실측 지도가 다수 제작되기도 하였다. 조선정부는 통리기무아문의 설치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측량을 교육에 힘썼다. 통리기무아문이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 토지조사사업을 하며 자국의 힘으로 근대도면을 완성하였다. 고종대에는 다양하고 정밀한 대축척중심의 지도의 제작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제실소유제산 전수를 실측하는 것이 어려워 일부 개측이 이뤄지기도 하였으나, 이는 지도학적 측면에서 근대화를 지향하던 면모이다.

넷째, 일제강점 직전에는 건축도면을 나타내기 위해 청사진 형태로 지도가 활발히 제작되었다. 정부의 주요 건물을 이전하고 매축지를 신축하는 등 공간적인 변화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제작된 것으로 이는 당시 사회변화를 이해하는 주요한 자료가 된다.

다섯째, 고종연간 공문서에 수록된 지도들은 고종이 추진했던 근대화 정책과 외국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침략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서구문물을 받아들인 고종은 교통·통신시설을 건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청·일본·영국·미국·프랑스 등이 어업권과 석탄채굴권 획득으로 인한 각축전을 벌이는 등 이권침탈의 과정을 볼 수 있다. 개항장과 한성을 중심으로 '조차지'와 '외국인거류지', '조계지' 등 토지임차의 개념이 등장하고, 한성부 내에 외국공사관이 설치되며 일제 강점기이전 근대화를 지향하는 建物들이 세워지는 등 한반도 각 지역에서의 공간구조변화가 활발히 일어났다.

앞으로 19세기 후반~20세기 초의 지도제작 양식의 구체적인 변화과정과 내용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기 이전까지의 조선 사회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공간구조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권태억, 1994, "甲午改革 以後 公文書 體系의 變化", 奎章閣 17, pp.77~98.
- 김건우, 2006, "甲午改革期 公文式과 公文書의 變化", 고문서연구 제29호, pp.137~163.
- 김상호, 1986, "朝鮮時代의 公文書 管理", 서지학연구 1, 서지학회, pp.157~175.
- 김추윤, 2005, "大韓帝國期의 大縮尺 實測圖에 관한 事例研究", 한국지도학회지. 제5권 제1호, pp.41~53.
- 김태진, 1995, "日帝强占 初期의 奎章閣 圖書 整理 事業", 奎章閣 18, pp.175~197.
- 남영우, 1992, "日帝 參謀本部 奸謀隊에 의한 兵要朝鮮地誌 및 韓國近代地圖의 作成過程". 文化歷史地理 4호, pp.77~96.
- 신용하, 1981, "奎章閣圖書의 變遷過程에 대한 一研究", 규장각 5, pp.59~63.
- 손계영, 2005, "朝鮮時代 古文書에 使用된 종이分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5권 제1호, pp.79~105.
- 손정목, 1985, "日帝下의 都市計劃에 관한 研究(1)", 국토계획 제20권 제1호, pp.202~224.
- 이상찬, 1997, "奎章閣 所藏 資料의 公文書 分類圖章에 대하여", 서지학보 20, pp.49~81.

- 양보경, 1992, "18世紀 비변사地圖의 考察-奎章閣 所藏 道別 郡縣地圖集을 中心으로-", 규장각 15, pp.93~123.
- 양보경, 2005, "地圖의 近代와 前近代, 文化歷史地理學會 심포지움, 近代와 地理", pp.1~16.
- 윤형섭·최윤수·권재현·이임평, 2005, "漢城府 地籍圖에 대한 考察", 한국지적학회지 제21호, pp.69~83.
- 전경목, 2005, "古文書學 研究 方法論과 活性化 方案, 정신문화연구 제28권", pp.209~239.
- 최승희, 1989, "朝鮮時代 古文書와 史料價值, 조선시대사학보 39", pp.195~208.
- 시민시대 (<http://www.magsimin.com>)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www.encykorea.com>)